

numbers 제 39호



주요 내용

2020. 03.20

1.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2. 1)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2)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2020 일반사회통계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우리나라는 정치 갈등이 매우 심한 나라이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전 국민이 우리나라를 정치 갈등이 심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도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 통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국회, 사회단체 심지어 종교단체도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해마다 갈등 해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지출되고 있기에, 정치 갈등, 사회 갈등을 풀고 통합하는 일이 한국 사회에 주어진 가장 큰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다보니 국민은 정치에 만족하지 못한다. 국회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엘리트들에 의한 장악된 곳’으로 인식한다, 신뢰도와 청렴도가 바닥 수준이고, 국민의 의견을 공정하게 대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

제 21대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공천 갈등, 비례정당 문제, 코로나로 인한 정치 신인의 운동 어려움 등 여러 이슈가 보도되고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스] 39호**는 ‘한국인의 정치 의식’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아울러 개신교인과 목회자들의 정치 의식도 함께 다루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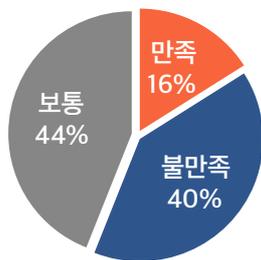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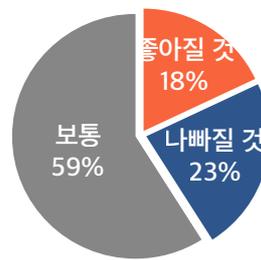
1 우리 국민, 한국 정치 만족도 16%

- 우리 국민은 한국 정치에 대해 만족 16%, 불만족 40%로 매우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향후 미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이 18%로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23%) 보다 다소 낮음

[그림] 한국 정치 만족도 (%)



[그림] 향후 정치 상황 전망(5년 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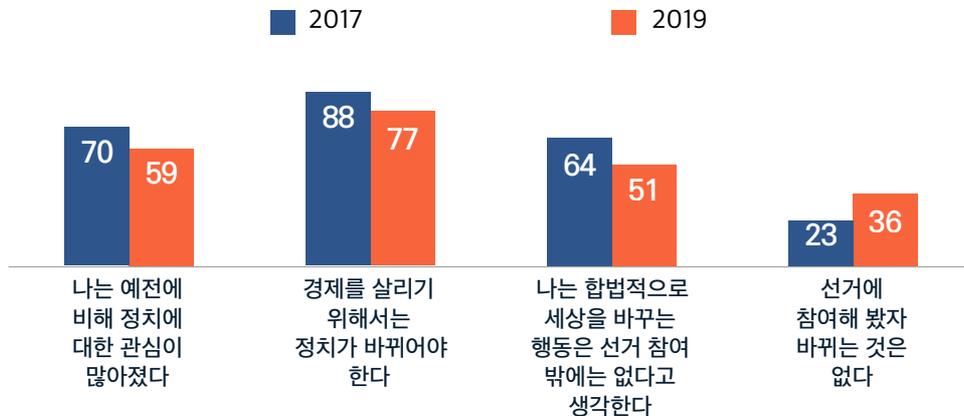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20.01. (만 19-69세, 전국 성인 남녀, 8,000명, 가구 방문 면접 조사, 2019.09-10)
 ** note : 10점 척도 질문으로 0-3점 불만족, 4-6점 보통, 7-10점은 만족으로 산정함

● 지난 2년 사이, 국민의 정치 관심도 및 정치 참여 의식 낮아져

- 정치적인 관심도, 정치가 바뀌어한다는 인식, 선거 참여 인식 등에서 지난 2년 사이 국민 인식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정치 관심도 및 정치 참여 의식 평가(2017 VS 20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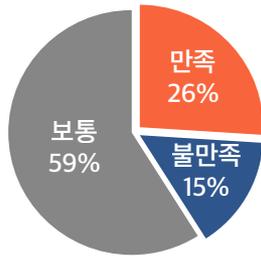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정치참여활동 및 주민직접참여제도 관련 인식 평가' 2019.11.01. (만 19-59세,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1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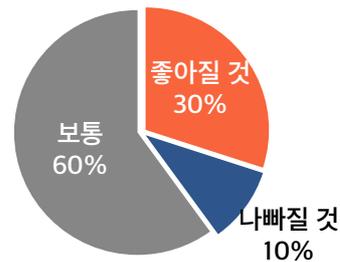
●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 정치 만족도 보다는 더 높게 평가함

-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만족’(26%)이 ‘불만족’(15%)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만족도는 정치 만족도(1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민주주의 수준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보다는 긍정 전망이 더 높게 나타남

[그림]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 만족도 (%)



[그림] 향후 민주주의의 전망(5년 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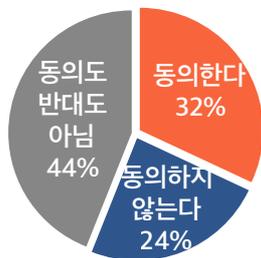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20.01. (만 19~69세, 전국 성인 남녀, 8,000명, 가구 방문 면접 조사, 2019.09~10)
 ** note : 10점 척도 질문으로 0~3점 불만족, 4~6점 보통, 7~10점은 만족으로 산정함

2

국민 3명 중 1명(32%), ‘나는 정치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정치 현안에 대한 국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나는 정치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에 대해 동의 여부를 질문한 결과, 32%가 ‘동의한다’고 응답함
- 정치 현안 인지도는 학력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아짐

[그림] ‘나는 정치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동의 여부) (%)



[그림] 학력별 동의를 (%)



*자료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20.01. (만 19~69세, 전국 성인 남녀, 8,000명, 가구 방문 면접 조사, 2019.09~10)
 ** note : 10점 척도 질문으로 0~3점 불만족, 4~6점 보통, 7~10점은 만족으로 산정함

● 우리 국민, 정치적 참여도는 10% 이하로 비교적 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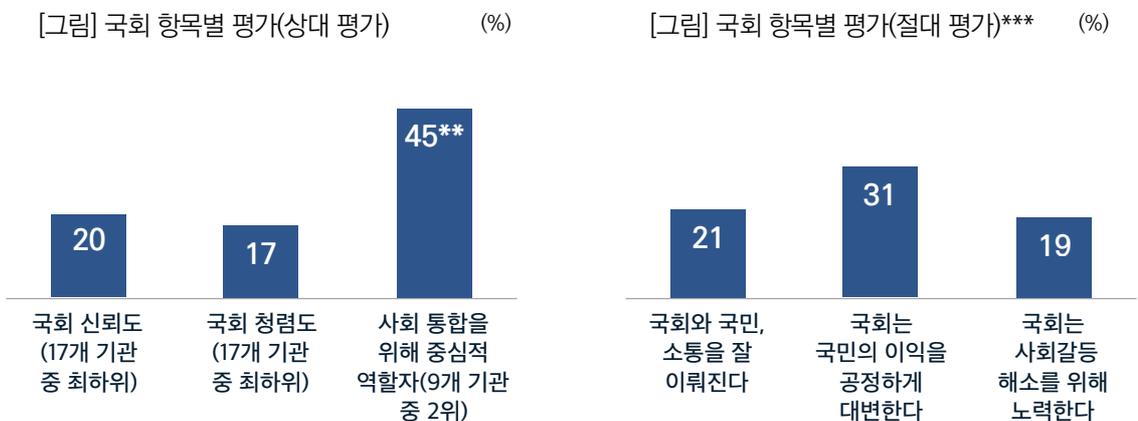
- 정치적 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몇 가지 항목을 제시한 후 경험을 질문한 결과, 주변인과 정치적 대화 이외 공식적인 참여 활동은 대체로 10% 이하의 낮은 참여율을 보임
- 주변인과 정치/사회 현안 대화 관련 국민의 19%는 아예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20.01. (만 19-69세, 전국 성인 남녀, 8,000명, 가구 방문 면접 조사, 2019.09~10)

3 우리 국민, 국회에 불신감 매우 높음

-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신뢰한다' 20%, '신뢰하지 않는다' 80%로 대부분의 국민은 국회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음
- 또한 국회에 대해 청렴도가 매우 낮고, 국민과 소통도 잘 못하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지도 못하고, 사회 갈등 해소 역할도 잘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사회 통합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사회 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기관으로 국민들은 정부(65%)에 이어 국회(45%)를 두 번째로 꼽고 있어, 국회에 대해 사회 통합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



*자료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20.01. (만 19-69세, 전국 성인 남녀, 8,000명, 가구 방문 면접 조사, 2019.09~10)

** (1위+2위) 비율임

*** 4점 척도(단, 사회갈등해소 노력 문항은 5점 척도 문항)에서 긍정율(매우+약간) 비율임

4

세계 비교, 한국 정치 제도 평가가 글로벌 평균보다 낮아

- 글로벌 조사 전문 기관인 입소스에서 전 세계 27개국을 상대로 각국의 정치 의식 조사를 실시했는데, '우리나라 정치 체제는 국민의 의견과 관심사를 대표하는 일을 잘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의 경우 '동의한다' 21%, 동의 안 한다 46%로 국민 5명 중 1명 정도만 정치 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국 정치 제도의 긍정 평가에 대해 글로벌 평균은 27%인데 반해, 한국은 2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미국은 한국보다 높은 26%이고, 일본은 15%로 조사됨. 특히 일본의 경우 27개국 중 25위로 일본인들 스스로 정치 체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림] '정치 제도 국민 의견 대변 잘 한다' 동의 여부(글로벌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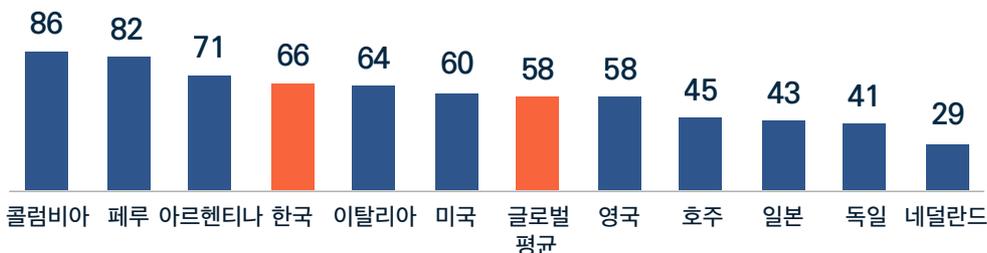


*자료 출처 : Ipsos Global, 'World Affairs', 2019.11.25(전 세계 28국, 18세 이상 ~ 74세 남녀, 18,526명, 2019.08-09, 한국 1,000명, 온라인 조사)

● 현 정치 체제, '엘리트들에 의해 장악되었다' 66%

- 현 정치 체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는 부패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바뀌지 않는 엘리트들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 66%, 즉 3명 중 2명 정도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한국인의 이러한 인식은 글로벌 평균(66%)보다 높음. 미국은 60%, 일본은 43% 등으로 한국보다 낮음. 가장 높은 나라는 콜롬비아(86%)임

[그림] 정치 체제 '우리나라 정치 체제 엘리트들에 의해 장악되었다' 동의 여부(글로벌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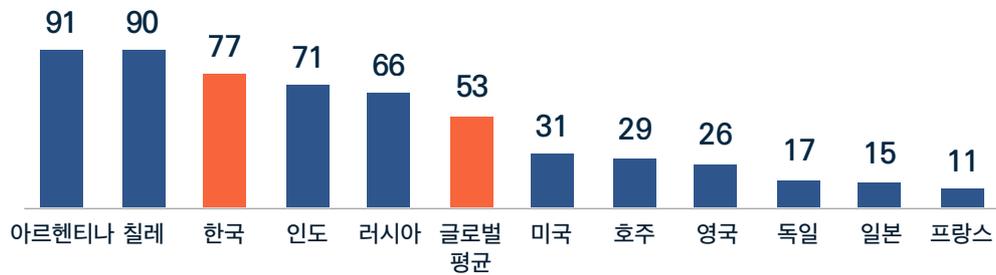


*자료 출처 : Ipsos Global, 'World Affairs', 2019.11.25(전 세계 28국, 18세 이상 ~ 74세 남녀, 18,526명, 2019.08-09, 한국 1,000명, 온라인 조사)

● 그러나 ‘아이들은 더 나은 민주주의에서 살 것이라는 기대감’은 매우 높음

- ‘내 아이들이 오늘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에서 살 것으로 기대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 77%, ‘보통이다’ 18%, ‘동의 안 한다’ 6%로 나타나, 현 정치체제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은 미래 민주주의에 대해서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음
- 한국인의 이러한 기대감은 글로벌 평균(53%)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미국(31%), 일본(15%), 프랑스(11%) 보다 높은 수치임.
- 일본인의 경우 27개국 중 26위로 미래 민주주의에 대해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아이들은 더 나은 민주주의에서 살 것 기대’ 주장 동의 여부(글로벌 비교) (%)



*자료 출처 : Ipsos Global, 'World Affairs', 2019.11.25(전 세계 28국, 18세 이상 ~ 74세 남녀, 18,526명, 2019.08-09, 한국 1,000명, 온라인 조사)

5

개신교인, 평신도보다는 목회자가 정치에 더 관심 많아

- 개신교인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정치 관심도를 조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한 결과에 의하면, 정치에 '관심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개신교인 80%, 목회자 94%로 목회자가 평신도보다 정치에 더 관심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정치에 대한 관심도 (개신교인 vs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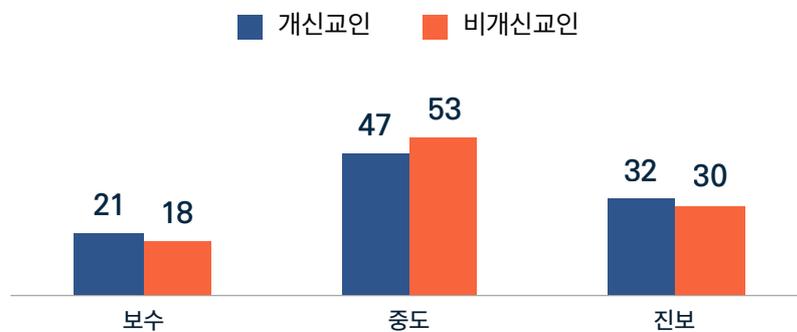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언론포럼, '2017년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목회자 및 개신교인 조사' 2017.12.
(만 19세 이상 전국 개신교인 900명, 목회자 100명, 온라인 조사, 목회자는 일대일 팩스 이메일 조사, 2017.11)

● 개신교인, 비개신교인보다 중도층 적고 양 진영으로 더 집중

- 이념 성향을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들 대상으로 분석해 보았는데, 보수 성향의 경우 개신교인 21%, 비개신교인 18%로 개신교인이 약간 더 많고, 진보 성향의 경우 역시 개신교인 32%, 비개신교인 30%로 개신교인이 다소 더 많음
-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개신교인은 보수 32% 중도 45% 진보 23%인데 반해, 비개신교인은 보수 30% 중도 41% 진보 30%로, 개신교인 고령층이 비개신교인 고령층보다 진보층이 뚜렷하게 적고 보수도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정치적 이념 성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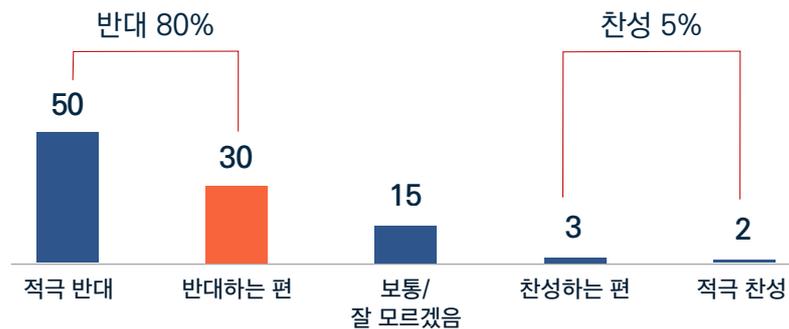
*자료 출처 : 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019년 주요 사회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보고서', 2019.09.
(만 19세 이상 전국 개신교인 1000명, 비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19.07)

** 이념 성향은 조사 방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본 조사의 경우 온라인 조사임을 고려해야 함

● 개신교인, '기독교정당 창당하여 정치 참여하는 것'에 대해 80%가 반대!

- 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이 기독교를 표방하는 정당을 창당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개신교인(80%)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5%의 개신교인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경향은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그림] 기독교정당 창당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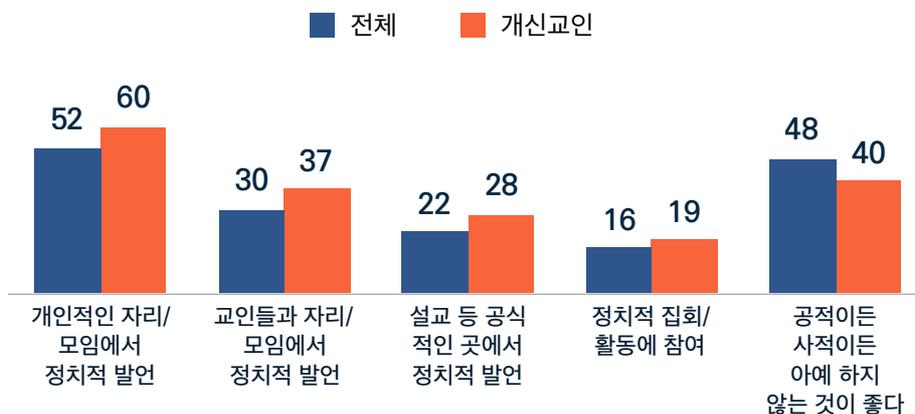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019년 주요 사회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보고서', 2019.09.
(만 19세 이상 전국 개신교인 1000명, 비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19.07)

● 국민의 절반 가까이, 목사가 사적이든 공적이든 정치적 발언 않기를 원해!

- 최근 한기총 전광훈 목사의 정치적 활동이 기독교 내에서 이슈가 된 것과 관련, 기독교 목사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48%)는 사적이든 공적이든 목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으며, 52%는 사석에서는 괜찮다는 입장이고, 정치적 집회 참여나 활동해도 된다는 의견은 16%로 나타남
- 개신교인의 60%는 목사가 개인적인 자리나 모임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괜찮다는 인식인데, 전체적으로 목사의 정치적 발언 또는 활동에 대해 일반 국민 보다는 다소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목사의 정치적 참여 허용 정도(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중복 응답) (%)



*자료 출처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0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2020.01.20.
(만 19세 이상 전국 개신교인 1000명, 전화 면접 조사, 2020.01.)

6 시사점

이번 넘버즈 39호 ‘한국인의 정치 의식’ 분석 결과의 핵심은 우리 국민은 한국 정치와 정치인, 그리고 정치 제도에 대해 폄하하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3~6쪽). 그래서 정치적 참여가 낮은 것은 당연하다(5쪽).

정치에 대해 대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는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정치 혹은 정치인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사람이 좀 더 객관적인 사람으로 비치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란 우리가 폄하하거나 혐오해야 할 영역이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켜야 하는 영역이다. 헌법 제1조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있는 것처럼 정치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길이다. 한나 아렌트는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과 소극적 행동이 나치와 같은 전체주의를 불러 온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므로 민주국가의 시민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원론적인 측면 외에도 정치는 우리의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은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이라고 정의했다. 이 말은 정치가 사회적 자원을 사회의 어느 영역에 언제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무상 급식을 할 것인지 혹은 유상 급식을 할 것인지, 노인 연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정부 예산을 국방비로 더 지출할 것인지 기업체 지원에 더 지원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이와 같이 정치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생활의 많은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인으로서도 정치에 관심을 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4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몇몇 교회에서는 정치적 설교와 기도 때문에 교회 내부에서 세대 간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이번 [넘버즈] 데이터에 따르면 목사가 정치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조차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9쪽).

기독교인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품고 참여해야 한다. 그런 힘을 모아 정치인을 움직여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 교회는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 정치적 참여를 합리적으로 해야 함을 가르쳐야 한다. 하지만 교회는 정치 현장에 감시자로서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관심을 두어야지 특정 정치적 집단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는 데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

종교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능 중 하나가 사회 통합 기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 갈등이 매우 심한 나라인데 교회가 갈등의 당사자가 아니라 갈등 주체에서 빠져나와야만 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을 진보든 보수든 한국 교회 리더십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1 최근 언론 보도 통계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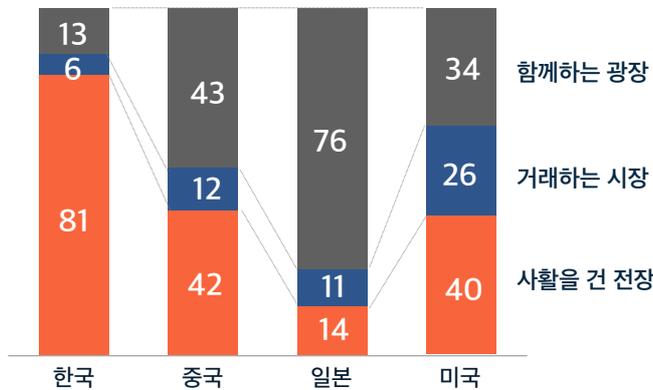
2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쟁’

- 한·미·일·중 4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국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대학생의 81%가 고등학교를 ‘사활을 건 전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4개국 학생 중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임. 일본의 경우 단지 14%만이 고등학교가 ‘사활을 건 전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자국 고등학교 이미지(4개국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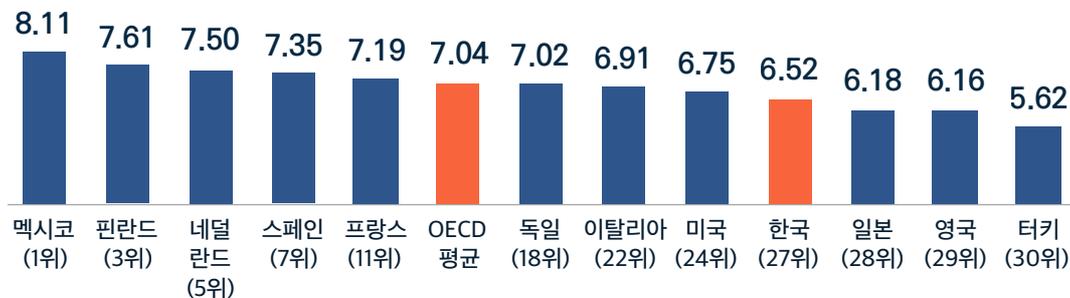


*자료 출처 :한국개발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4개국 대학생들의 가치관에 대한 조사', 2017.12.31 (2017.한/중/일/미 4개국 대학생 각 1,000명, 온라인 조사, 2017.8-9),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보고서, '사회자본에 대한 역할과 정책 방향', 2017.12.31.

● 만 15세 기준 삶의 만족도, OECD 국가 중 하위권

- OECD가 실시하는 각국 학생들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결과에 따르면 만 15세 학생(중학교 3학년) 기준으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OECD 국가 중 한국 27위로 하위권에 위치하였음

[그림] 자국 고등학교 이미지(4개국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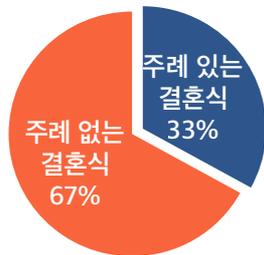


*자료 출처 :OECD, "PISA 2018 Results Vol 3", 2019.1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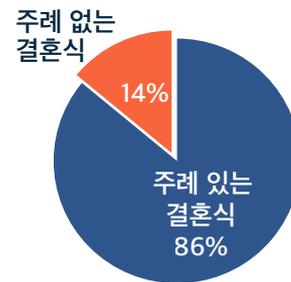
2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들에게 주례 유무에 관해 묻은 결과 '주례 없는 결혼식'(67%)이 '주례 있는 결혼식'(33%)보다 두 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남
- 이미 결혼한 기혼자들의 결혼 형태는 주례 있는 결혼식(86%)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원하는 결혼식의 주례 유무(미혼 대상) (%)



[그림] 기혼자 결혼식의 주례 유무(기혼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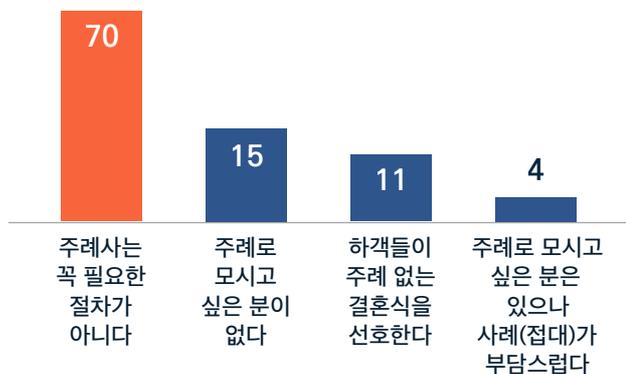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나우앤서베이, '주례 없는 결혼식이 대체 모두 좋아해', 2019.02.25. (전국 성인 남녀, 1640명, 온라인 조사, 20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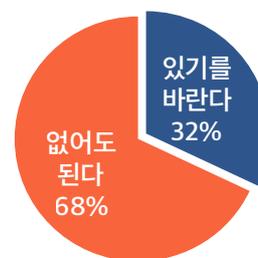
● 주례사, “꼭 필요한 절차 아니다” 70%

- 주례 없는 결혼식을 했거나 또는 주례 없는 결혼식을 원하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주례사는 꼭 필요한 절차가 아니다'라는 응답이 70%로 주례사 불필요성에 대한 높게 인식하고 있음
- 또한 하객으로 참석했을 때 '주례사 없어도 된다'는 인식이 68%나 달해, 참석자 입장에서도 주례사의 불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원하는 결혼식의 주례 유무(미혼 대상) (%)



[그림] 기혼자 결혼식의 주례 유무(기혼 대상) (%)



*자료 출처 : 나우앤서베이, '주례 없는 결혼식이 대체 모두 좋아해', 2019.02.25. (전국 성인 남녀, 1640명, 온라인 조사, 2020.02).

3 언론 보도 기사 및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조사 통계로 본 4.15 총선 - 중도층 분석](#)

중앙일보_2020.03.04.

“4/15 중도 표심에 달렸다”



[2019 혼인 이혼 통계 조사](#)

연합뉴스_2020.03.19.

“지난해 부부 11만쌍 헤어져…40대 이혼율 가장 높아”



[2019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

한국강사신문_2020.03.16.

“201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 발표…독서생활에 종이책 비중 줄고 전자책 늘어”



[매해 늘어나는 로또 판매액](#)

연합뉴스_2020.03.12.

“작년 로또 판매액 4.3조…역대 최고 기록 또 깼다”



[한국, 미세먼지 노출 위험 국가](#)

MBC_2020.03.14.

“한국 인구 55%, ‘WHO 권고 2배’ 초미세먼지에 노출…OECD 1위”



[근로소득 격차 분석 결과](#)

연합뉴스_2020.03.16.

“월급쟁이 연봉격차 완화..상위 1%는 4% ↑, 상위 50%는 8% ↑”



[미국 코로나19 관련 여론 조사](#)

연합뉴스_2020.03.18.

“미국인 거의 절반, 코로나19 막을 더 공격적 대책 선호”

스토리가 있는 기사



[노후에 특히 유의해야 할 세 가지, 돈, 건강, 배우자](#)

중앙일보_2020.03.18.

“비대칭 행복 곡선”



[1반만 있는 학교](#)

한겨레21_2020.03.13

“800m 거리 두 학교 전교생 ‘1242명 대 178명’의 비밀은”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크리스천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크리스천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크리스천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 · 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크리스천,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 전망,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헌혈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가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후원 교회, 기관, 개인은 홈페이지에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 02-322-0726,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링크 → [클릭 하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